

지역 소식통

김제문화예술회관 개관 8주년 기념 축하 음악회

문화, 예술 행복 도시 김제문화예술회관 개관 8주년을 맞이하여 개관 축하음악회를 4월 21일 오후 7시30분 시민과 예술이 소통하는 감동과 열정의 무대로 공연된다.



이번 공연은 다양한 색깔에 최고의 뮤지션들이 출연하여 재미난 입담과 편안하고 유쾌한 시간을 경쾌하면서 화려한 히트곡들로 이 계절의 삼삼함과 화사함을 전하는 특별한 시간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내 가요계 록을 기반으로 대중적이고 강렬한 음악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소찬휘가 Friend, 엄마, 고래사냥, 보낼 수 밖에 없는 난, Tears, 현명한 선택 등을 부를 예정이고, 킬러 레옹이라는 다편이로도 유명한 박상민은 지중해, 해바라기, 하나의 사랑, 청바지 아가씨 등 뛰어난 가창력과 열정적인 무대로 모두가 화합하며 즐기는 폭발적인 무대가 될 것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청하면-포항시 청하면 자매결연 협약 체결

김제시 청하면(면장 김중배)은 19일 청하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포항시 청하면과 동서 간 교류를 통한 상호협력 기반 마련을 위해 자매결연을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양 기관은 영호남의 대표적인 동명 행정기관으로 위도 상 거의 같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으며, 바닷길과 접하고 있는 등 지리적인 입지 조건도 비슷하여 새만금-포항 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상생하여 발전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중배 김제시 청하면장과 이종각 포항시 청하면장, 김제시 청하면 주민자치위원과 포항시 청하면 개발자문위원, 양측 시의원 등 70여명의 각계각층 사회단체회원이 참여하여 양 기관의 상호협력과 향후 교류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이번 협약에서 양 기관은 상호협력을 위해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 합의하였으며, 선진 농촌 행정 교류를 통한 지역사회 공헌 및 공동발전 모색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고 향후 공생 발전과 더불어 경제·문화·행정 등의 각 분야에서 상호 교류를 통해 협력하자는데 손을 모았다./김제=곽노태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완주농업인전문기공센터 개장

군, 과실·축산물 전문가공 농업인 본격 육성 나서

완주군이 과실·축산물 전문가공 농업인 육성에 본격 나섰다.

완주군은 19일 박성일 군수, 소비자대표, 농업인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인 전문가공센터 개장식을 가졌다.

이번에 문을 연 가공센터는 완주군이 지난 2015년 농촌진흥청 6차산업수익모델 시범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가공을 통한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창출의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딸기 등 과일 8종과 한우, 돼지 등 축산물을 가공하기 위해 총 20여억원을 투자했다. 2755㎡ 부지에 건축면적 568㎡의 규

모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 기준에 맞춘 과실공방과 축산공방을 설치했다.

가공센터는 과실 연간 192톤, 축산물은 500톤을 가공할 생산능력을 갖췄다.

과실공방은 완주로컬푸드과실생산자협동조합에서, 축산공방은 ㈜그린팜푸드 농업회사법인에서 지난 1월부터 운영 중이다. 여기에 완주군 농업인 200여명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생산되는 제품으로는 잼, 젤라또, 과일음료 등, 장조림, 양념소스 등이 있다. 이들 제품은 앞으로 로컬직매장과

공공학교급식, 프랜차이즈매장, 카페 등에 납품될 예정이다.

앞서 과실공방과 축산공방은 지난 2월 완주군 공공학교급식에 식재료 납품업체로 선정된 바 있다.

또한 축산공방은 지난 3월 HACCP 인증을 취득했으며, 과실공방도 5월경 취득할 계획이다.

박성일 군수는 "이번 가공센터 개장으로 농업인 전문가공이 실현됐다"며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통한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증대와 시장에서의 소비자 요구를 충족하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만족시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기자

김제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최종 46건... 시정 책임정책 투명성 강화

김제시는 지난 18일 이승복 부시장을 중심으로 관련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올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46건을 최종 선정했다.

정책실명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과 '김제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에 따라 시정의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시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이다.

2013년부터 강화된 정책실명제는 새

만금 김제 목 찾기,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 등 현재까지 총 248건의 중점사업에 대해 진행단계마다 사업부서, 담당자, 사안별 대응 및 추진내용 등을 적극 알림으로써 시민의 궁금증을 적극 해소해 왔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고용복지 공동교육관 건립, 김제 모악산 캠핑파크 조성 등 10억원 이상의 예산사업 15건, 김제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 등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3건, 김제정명 역사정립 추진, 벽골제 세계유산 등재 등 시정 주요정책사업 9건, 다수 시민과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 9건 등 총46건의 사업을 확정하고 홈페이지(www.gimje.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승복 부시장은 "정부 3.0과 함께 그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 시민공개를 통하여 정책 전반에 대한 책임있는 공개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신뢰 행정을 지속 견인 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우유 한 잔의 행복 사업' 운영

10월까지...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

완주군이 65세 이상의 영양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우유 한 잔의 행복 사업'을 운영한다.

19일 군에 따르면 우유 한 잔의 행복 사업은 13개 읍·면의 영양취약 어르신 350여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운영한다.

군은 골다공증 검사와 신체계측을 실시해 맞춤형 식생활관리(영양교육 및 상담)를 지도하고, 우유 제공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우유 제공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의 영양 상태와 식생활에 대한 인지변화, 우유섭취 등 전후의 신체변화를 기록하는 건강조사 등도 실시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군은 19일 완주나우회와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완주 나우회에서는 어르신들에게 450만원 상당의 우유를 후원할 예정이다.

군은 또 지역사회자원 활용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완주로컬유업 우유를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일자리사업과 연계해 배송한다.

이와 관련 군은 찾아가는 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금연·구강·치매 방문사업 등)과 함께 거동 불편한 건강취약요인이 있는 어르신에 대해서도 노인 돌봄이,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이 직접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완주=이종복기자



창의로봇 방과후 지도사 교육훈련

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일자리 제공

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2017년도 여성가족부지원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창의로봇 방과후 지도사 양성과정에는 15명의 교육생이 참여한다. 19일부터 6월 14일까지 160시간의 교육이 진행된다.

창의로봇 방과후 지도사 직업교육훈련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창의적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현대 교육과정의 기조에 따라 실시된다.

군은 해가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방과후학교, 자율학기제, 로봇과

학교실 등에 맞는 지도강사를 양성해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취업 기회를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계임 사회복지과장은 "2017년도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 및 미취업 여성들에게 취업의 길을 열어줘 자기 소질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홈페이지나 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290-3881~6)에 문의하면 된다.

/완주=이종복기자



김제사랑장학생 183명 선발... 2억7000만원 지급

김제사랑장학재단(이사장 이건식)은 지난 18일 김제사랑장학생 선발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 2017년도 김제사랑장학생 183명을 선정하고 총 2억 7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과 출향인, 사회단체 등의 기탁금과 후원금이 모여 김제사랑장학재단에는 현재까지 총 294억원의 장학기금이 조성되었으며, 지난 2008년부터 2016년도까지 1,223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총 15억 6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이번에 선발된 장학생들에게는 고등학생에게는 연간 120만원, 대학생에게는 등록금 범위 내 연간 300만원에서 최고 6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으로 값비싼 등록금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Large advertisement for 'Namsun's Spring Festival' (남원시의 봄 축제) featuring a circular collage of festival scenes and a list of events: Chunchangje (5월), Cheoljukje (4~5월), Yochonbyeon Baeok (4월), Yehang-eum (여행은 판다를 나와의 만남), Jirisan Dulle-gil (3~5월), and Yochonjae-gil (5월). Logos for Sunghangnam and Namsun are also present.